

아이들이 행복한 누리과정의 정착을 위하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난 한 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육아정책연구소는 '5세 누리과정'을 계획대로 도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에 따라 마침내 금년 3월에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나라의 모든 만 5세 아이들은 같은 내용을 배우고, 사는 지역과 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이제 '5세 누리과정'이라는 용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 한 가운데에 있는 지금은 내년 3월에 '3~4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5세 누리과정의 원만한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3~4세 누리과정의 도입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기의 교육과 보육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최고의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관련부처 및 단체 간의 협의가 쉽지 않아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대상이 제한되고 지원단기도 낮아 학부모의 육아부담이 컸습니다. 정부는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취학 전 유아교육·보육의 완성을 5세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맺게 된 배경은 취학 전 어린이의 바른 성장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보다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투

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원 확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 3~4세 누리과정이 도입·시행되면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어느 선진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단단한 기반을 갖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인적인 인간으로 기르기 위해 유아 단계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창의체험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애의 어떤 시기보다 인성형성에 있어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금년부터 인성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공모 사업을 실시합니다. 공모사업은 2012년 7월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현장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 8월말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9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성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3년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추후 평가를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인성교육이 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준비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정부합동으로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만 3~4세 유아지원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였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3월 초부터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기 위한 3, 4세 누리과정 제정 T/F'를 구성·운영하였고, 지난 6월에는 3, 4세 누리과정 제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지도서·해설서·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누리과정을 담당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이면 우리나라의 모든 3~5세 유아는 누리과정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단계에서부터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고, 생애 초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